

## OPEC의 딜레마와 長期戰略

세계 석유수요의 회복이 늦어지고 現物市場가격의 안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OPEC (石油輸出國機構)는 고뇌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던 OPEC總會는 現行基準原油價格(배럴당 29달러)와 13개 회원국의 총생산쿼터(하루 1 천7 백50만배럴)를 내년 1/4분기까지 유지하는데 합의했으나, 그 논의과정에서는 OPEC의 새로운 딜레마의 색채가 뚜렷이 나타났다.

앞으로 OPEC의 결정이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주요요인은 ① 欧米등 북반구의 주요 석유소비국의 겨울철 일기, ② OPEC 회원국별 할당량 준수를 위한 규율, ③ 美國, 英國, 멕시코, 이집트, 소련, 東南아시아 등 非OPEC제국의 생산 및 가격정책에 달려 있다.

OPEC의 동향이 일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지만, 그만큼 현재 세계의 석유수급관계와 OPEC의 가격정책이 미묘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IEA(國際에너지機構)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 4/4분기의 자유세계의 총수요는 하루 4 천5 백60만 배럴(전년동기대비 1.8% 증가), 내년 1/4분기에는 4 천6 백40만배럴(전년동기대비 2.4%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예년보다 추운 환파가 북반구를 뒤덮을 경우, 석유수요는 늘어나 OPEC가 하루 1 천7 백50만배럴 수준에서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격면에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겨울철 날씨가 계속 따뜻하고 非OPEC제국이 종래의 베이스대로 增産(83년 추정으로 전년대비 3% 증가)을 계속하게 될 경우 OPEC의 기준가격방위는 어렵게 될 것이다. 지난 11월 이후 現物市場의 안정으로 美國이나 소련의 주요油種의 가격 인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北海원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장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석유시장동향은 OPEC가 배럴당 5 달러씩 대폭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금년 1/4분기의 상황과 흡사하다. 다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세계경제상태가 당시 보다는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묘한 분기점에 서서 가격유지를 지향하는 OPEC의 과제는 각국이 國別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카르텔의 규율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와 또한 增産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非OPEC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OPEC가 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自由世界의 석유시장에서의 OPEC 生産비중은 40%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非OPEC의 생산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OPEC의 자속도 한계가 있다. OPEC는 이러한 딜레마를 안은 채 이번 總會에서는 國別 할당량에 대한 실시상황의 감시강화, 사우디 아라비아의 생산조정기능을 公認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의 생산상한을 확정한다는 카르텔강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같은 OPEC의 論理를 추측해보면 결국 앞으로의 방향은 非OPEC를 포함한 世界石油 카르텔에의 移行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또 다시 油價의 대폭 인하과정에 돌입하게 될 경우, 그와 같은 가능성도 나올 수 있지만, 원유가격이 배럴당 29달러라고 하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OPEC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OPEC 및 産油國 전체의 석유수요를 또 다시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석유가격의 수준은 무엇인가가 결국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OPEC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이 이번에도 제안했던 오는 85년 말까지의 가격동결안이나 석유수요환기에 관한 장기전략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도 에너지戰略이나 정책을 조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OPEC 및 기타 산유국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金 乾治·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